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개년 발전방안

2017. 1.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입후보자 이 호 경**

“질문하고, 공감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 공동사회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실천
- 사회복지 정립을 위한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서비스 실시



비전(VISION)

- * 생명력 있는 사회복지사
- * 신뢰받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변화를 이루는 사회복지현장

출마의 변

“당신의 신뢰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호경의 꿈과 자존심!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후배 동료여러분!

‘복지’는 이제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복지를 거론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예산확보나 처우개선 등 핵심문제에 있어서는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상대적인 박탈감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현재 지방분권화에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화 출현과 현 정부의 맞춤형복지 등으로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이끌며, 현장 실무자의 기둥이 되어야 할 책임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창립이후 70여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장 실무자들로 하여금 체념과 자괴감을 부르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후배 동료여러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제 물리적 문제를 뛰어넘어 21세기 복지국가를 향한 주체로써 중요한 변화의 꼭지점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엄중한 상황적 요구와 결단으로 회장입후보를 결정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서게 된 것은 더이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를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들에게 조차 외면 받는 현실을 용인할 수가 없고, 더욱이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사회복지사로의 자존감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온 제 삶의 대부분이 송두리째 도둑을 맞은 것 같은 상실감과 모멸감!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자책감과 자괴감이 발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후배 동료여러분!

사회복지인에게는 복지인만의 꾸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부족하지만 나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과 함께 내일에 대한 꿈을 키우며 새로운 희망을 일궈 나갈 수 있는 사회! 에 대한 비전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시작하게된 것은 이러한 소망, 꿈과 희망과 ‘비전’을 실천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Pride-Power

우리나라는 오천년 역사 이래 수많은 위기와 전쟁을 겪고서도 경제적으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12대 강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임에도 갈수록 삶이 척박해지는, ‘헬 조선’이라는 용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어지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역설적인 사회에서 내일의 희망이라는 불씨를 살려갈 수 있는 공동체의 최우선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꿈꾸었습니다.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 · 후배 동료여러분!

저는 사회복지 현장과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현장사회복지 실천가로 한 눈 팔지 않고 오로지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1996년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수탁개관, 1998년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개관, 2002년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수탁개관, 2005년 파주시노인복지관 수탁개관, 2010년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 개관, 2012년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수탁에 이어 2011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취임에 이어 2014 연임에 이르기까지 실무의 모든 부분을 경험하면서 헌신해 왔습니다. 특별히 1998년 서울협회 대의원 활동을 시작으로 2004 서울복지재단 사태, (대표이사 퇴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2007년 보수교육 체계화, (교육위원회위원) 5.31지방선거 특위, 공제회위원회 등 그동안 각 위원회 활동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참여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 · 후배 동료여러분!

21세기 미래 사회복지를 생각해야 하는 우리는 새로운 사회변화와 세대요구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사 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소명 앞에 무한한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문제로 드러난 지연과 학연, 정치부침에 따른 갈등과 분열을 치유, 협회의 위상은 물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외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이끌어내고 사회복지사 권익만이 아닌 사회적 발언권을 높이고 확보하는데 역량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현장실무자로서 오랜 시간 협회와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같이 고민을 해온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협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일을 하는 협회, 협회가 협회로서의 품격과 권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다시 기본을 다지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뢰와 화합을 위해 “餓死協會生”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명의식 아래 87만 실무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장 후보로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그 지엄한 사명 앞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23

20 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 이 호경을림

Pride-Power

I. 사회복지사 희망을 위한 약속

생명력 있는 사회복지사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실천1. 사회복지사 인권 및 권익보장하기

- 사회복지시설 윤리실천위원회 운영 상설화 추진
-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인권보장 실제화 법률 제도 개선
- 사회복지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경력 인정(100%) 확대
- 사회복지사 고충상담을 위한 광역별 권익지원센터 운영: 심리상담, 고충처리, 권익보호, 법률지원, 부당행위 감찰 및 시정

실천2. 사회복지사 가치 증진시키기

- 사회복지 자격제도 및 시설장 자격 요건 강화
- 임상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으로 제도 개선: (실습학기제 도입,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강화 및 인센티브제 실시, 실습기관 인증제 등)
- 정년퇴직, 장기근속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 제도화
- 국가적 재난, 재해 및 사회문제 옹호자, 조정자 지원 활동 강화

실천3.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하기

- 예비, 신입사회복지사 교육 체계 구축(예비사회복지사 캠프, 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멘토링)
- 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책, 직급별 직무교육 시스템 도입
- 직능단체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협업을 위한 보수교육 연계화
- 사회복지사 자격을 위한 보수교육 체계로 대상자 확대 개선

실천4. 사회복지 종사자 복리 증진시키기

- 사회복지공제회 연계서비스 확대(재해 및 상해보험, 노후준비 등)
-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적용과 차별금지, 대체인력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일·가정 양립 실현
- 경력단절 사회복지사 재취업을 돕는 교육 체계 마련
- 사회복지사 전담 어린이집 운영추진(MOU를 통한 시범운영)
- 사회복지사 소진예방 프로그램 및 안식휴가제도화 추진 (감정노동)

실천5.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기

- 유형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추진
- 전담인력, 계약직 등 비정규직 최소화 제도개선과 소규모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 사회복지시설 의무고용제 및 유희인력뱅크 시스템 도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 있는 개정 추진(사회복지사 법적 위상 강화 및 신분보장)
-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적정 인력기준 연구 및 인력확충

II.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희망을 위한 약속

존재의 이유를 회복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되겠습니다.

실천6. 협회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조직보완 및 제도 혁신하기

- 상근협회장 및 직능이사 제 도입을 통한 효율적, 생산적인 협회 위상 제고
- 협회장 회원소환제 도입으로 협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
- 전문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와 역할 강화

- 중앙협회와 지방협회 간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중장기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실천7. 재정투명성과 안정화를 통한 상생협회 만들기

- 중앙협회와 지방협회 재정공시 의무화 및 운영정보 공개 제도 도입
- 중앙 및 지방협회 대의원 워크숍 및 사무국 회의 정례화
- 보수교육 센터를 연계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기회 확대(순환경제식 직급별, 직책별, 대상별 교육훈련 제도화)
- 중앙과 지방협회 상생과 협력을 위한 재정구조 개선 (회비 및 교육비 분담조정)

실천8. 회원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우리협회 만들기

- 평사회복지사, 여성사회복지사, 소규모 시설 비례대의원 할당제 도입
- Media Friendly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소통과 홍보
-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한 선거문화 조성(선거공영제, 예비경선제 도입, 피선거권 확대: 3년차 회비 납부자가 아닌 보수교육 해당자 등)
- 청년위원회 도입

실천9. 협회 대외역량강화를 위한 연대와 통합 네트워크 만들기

- 각 직능단체 당연직 이사 제도 도입
- 평사회복지사, 여성사회복지사의 비례 의무 할당제 도입을 통해 대의원제도 보강
- 협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연수, 파견 도모
- 사회복지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학교 및 정우회 운영

실천10. 사회복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하기

- 사회복지 정책연구소 및 사회복지 역사관 설립운영
- 인터넷 방송국 및 Media Friendly 설립 운영
- Social Worker 지 업 그레이트 및 Time's 창간
- 사회복지 이슈회견장 'Appeal town' 운영

III. 사회복지정책 실천을 위한 약속

Yes, We Can Change,

변화를 이루는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실천11. 사회복지 실천 주체로서의 가치 정립

-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운동 전개(최저생계비, 생활임금제,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등)
-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실천 제안(권리옹호, 기본인권 침해 방지 등)
-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및 공적 서비스전달체계 민·관 역할 재정립(바우처 등 사회적 합의 없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민영화 반대)
- 사회복지 종사자 고충상담을 위한 광역별 권익지원센터 운영

실천12. 사회복지 제도 개선 및 정비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사회복지 자문기관으로의 역할 강화와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개발위원회 구성
- 비법인, 미인가 개인운영시설을 양산하는 현행 사회복지 제도 개선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실적,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규제조항 철폐와 자율성 확대,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연구 지원

공약13. 사회복지시설의 지역 간, 유형별, 형평성과 민주성 확보 지원

- 사회복지 현장 발전을 위한 민·관·계 파트너십 구축
-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사업 환원을 위한 정책 협의
- 사회복지시설 공익제보자 보호 및 인권침해자 영구제명
- 지방정부 사회복지 제도 파악 및 조례 개선 지원 실시

공약14. 사회복지 재정 확대 노력

- 사회복지회관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화 노력
-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 점검 모니터링단 운영
-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재정 실태 조사 및 통계 보고서 발간

공약15.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

- 전, 현직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진 구조봉사단 운영으로 일상 속의 사회복지실천
- Media Friendly 운영으로 사회복지사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복지서비스 및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 활동 (생활임금제, 연금확대,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제도 연구)